

2006년도 1학기 정보세계정치론 기말논문

중국의 디지털 대항패권

: 리눅스와 도메인 이름 체계를 중심으로

외교학과 2004-10536

신 철 범

I. 서론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혼란기를 겪고 나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이래,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 정치의 큰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¹⁾으로 남게 되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서 중국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자, 소위 ‘중국위협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군사·경제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구매력 기준 GDP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²⁾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는 중국이 실제로 미국을 위협하는 도전세력으로 부상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할 것인지 중국의 의도를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19세기 근대화의 실패라는 역사적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어 중국이 대항패권적(counter-hegemonic)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스즈키는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원용하여 중국의 19세기 국제사회화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유럽 근대 국제사회의 권력 정치적 속성을 자각함에 따라 강대국이 자국의 주권을 손상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특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1)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면모를 군사력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2005년 현재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5억 1800만 달러로, 세계 2~10위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을 모두 합친 수치의 약 2배에 이른다.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rankorder/2067rank.html> 검색일: 2006년 6월 13일)

2)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rankorder/2001rank.html> (검색일: 2006년 6월 13일)

3)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rankorder/2067rank.html> (검색일: 2006년 6월 13일)

다고 보았다.⁴⁾ 실제로 중국은 9.11 이후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주권이 손상된다고 여겨지는 인권,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와 대항패권적 특성이 현실의 군사·경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성장세는 21세기 정보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PC,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 산업, 인터넷 거버넌스와 같은 분야들이 이에 해당한다. CNNIC(China National Network Information Center: 中国互联网信息中心)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억 천만 명으로, 2억 3백만 명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⁵⁾ 이는 세계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이며⁶⁾,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인터넷 사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세계에서 중국 인터넷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 국제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대항패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 영역에서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화에 따른 국제정치의 특성에도 관련이 있다. 정보화로 등장한 PC, 소프트웨어 분야 및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이 중요하다. 구조적 권력이란,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이나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한다.⁷⁾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윈도는 사

4) S. Suzuki, "China's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Learning More about Power Politics?", *Asian Perspective*, Vol. 28, No. 3, (2004), pp. 139-142

5) 中国互联网信息中心, "第1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http://www.cnnic.net.cn/images/2006/download/2006011701.pdf> 검색일: 2006년 6월 13일)

6)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rankorder/2153rank.html> (검색일: 2006년 6월 13일)

7) 김상배,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1), p. 316

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규칙으로서 구조적 권력을 행사한다. 윈도의 환경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도태되고 MS가 윈도를 기반으로 여타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서 규칙을 점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태생의 민간 기구인 ICANN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독자적으로 맡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ICANN이 관리하는 도메인 이름 체계(DNS)는 인터넷에서 사용자와 정보를 이어주는 길목에 해당하는데, 이를 표준화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구조적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디지털 미 패권에 직면하여 대항패권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리눅스 지원과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이다. 중국은 자국의 정보 산업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윈도의 경쟁자로서 등장한 리눅스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고, ICANN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영어로만 이루어진 현 도메인 이름 체계에 대한 대항으로서 자국어 도메인 추진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⁸⁾ 대항패권의 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검토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디지털 대항패권의 성공 가능성 여부도 가늠해 볼 것이다.

II. 본론

1. 중국의 리눅스 지원

8) 디지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두 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자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의 반 패권주의적 특성만을 다룬다면 온라인(on-line)이라는 용어가 적당하겠으나, 운영 체제의 경우 비단 인터넷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화의 가장 핵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digital)’을 사용하였다. 정보 산업과 인터넷이라는 무대가 기술-정보-지식 변수를 둘러싼 세계정치인 정보세계정치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에서도 디지털 국제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리눅스가 갖는 권력적 함의

운영 체제는 모든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다. 컴퓨터 사용을 위한 일종의 공통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게임·워드 프로세서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구현된다.

그런데 운영 체제 시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느 우세한 한 운영 체제에 의해 독점이 일어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호환성의 문제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 소프트웨어가 어느 운영체제에서는 작동하고 어느 운영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즉 소프트웨어가 여러 운영 체제와 호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컴퓨터 사용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많은 운영 체제에 모두 호환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결국 하나의 운영 체제 표준으로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둘째, 네트워크 외부성의 문제다. 어느 한 운영 체제가 우수한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 수를 늘려나가면,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에 따라 사용자 수가 더 늘어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느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하는데, 사용자 수가 많은 운영 체제에 호환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서 그 운영 체제의 가치가 더 증대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어느 한 운영 체제가 ‘표준’으로서 전체 운영 체제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MS는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로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큰 ‘구조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MS는 업체들이 윈도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은 개방하되, 운영 체제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MS는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엄청난 구조적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⁹⁾

한편 리눅스는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리누스 토발스

9)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2005, 봄), p. 374

(Linus Torvalds)라는 학생에 의해 개발되었다. 리눅스는 MS가 운영 체제 시장에서 갖고 있던 기존의 절대적 우위를 잠식하며 MS 패권에 대한 대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리눅스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 즉 MS와 같은 방식의 이윤 추구 행위를 통해서 MS의 시장 지배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 리눅스가 지향하는 오픈 소스 방식은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써 리눅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고쳐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제작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엄격히 존재하지 않으며, 두 그룹 간의 피드백을 통해 단점을 보완해가는 방식이다. 이는 운영 체제, 또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MS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소스코드의 공개는 운영 체제의 공유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행사되는 구조적 권력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MS가 행사하고 있는 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의 수단으로서 리눅스의 오픈 소스 방식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중국의 리눅스 지원

중국은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공연히 언론을 통하여 MS의 패권을 무너뜨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MS가 행사하는 구조적 권력을 패권으로 간주하고 중국이 현실 정치에서 보여주는 대항패권적 특성을 디지털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S 패권 종식을 목적으로 중국은 최대 리눅스 제품 제공업체인 홍치(紅旗) 소프트웨어 등 중점 기업들을 중심으로 리눅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¹⁰⁾ 중국의 리눅스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성장률 4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¹¹⁾, 한·중·일 삼국 간의 리눅스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중국이 이와 같은 리눅스 지원 정책을 편 것은 아니었다. MS는 일찌감치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시장 진

10) 『전자신문』, 2001년 3월 21일.

11) 김상배, 2005, p. 370

입을 노렸으나,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가 횡행할 것을 우려하여 중국 정부 산하 전자공업부와의 합자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윈도의 불법 복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기대했던 지적 재산권 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¹²⁾ 하지만 불법 복제의 형태로라도 윈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999년 말 현재 95%에 달하게 되었는데¹³⁾, 이는 MS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 불법 복제 문제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MS의 태도와 운영 체제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공세적 입장으로 태도를 전환하여, MS에 대한 대체 운영 체제로서 리눅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리눅스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미국 국적의 회사가 자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¹⁴⁾, 이는 미국이 인권 문제, 양안(兩岸) 문제 등에서 중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눅스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윈도보다는 거부감이 덜하다. 더불어 윈도와 인텔의 결합으로 막강한 구조적 권력을 행사하는 ‘윈텔리즘’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유사시에 윈텔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통신 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중국의 안보와 주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중국 지도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오픈 소스 코드라는 리눅스의 특성 때문이다. 리눅스는

12) 김익수, 『중국시장 마케팅 : 전략과 사례』, (서울: 박영사, 2004), pp. 414-417

13) 정재호, “파룬공, 인터넷과 중국 내부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Vol. 35, No. 3, 2001, p. 308

14) Bussiness Week Online, 2004년 3월 30일

(http://www.businessweek.com/technology/content/mar2004/tc20040330_6891_tc167.htm)

검색일: 2006년 6월 8일)

15) 정재호, 2001, p. 308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개발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 리눅스의 이러한 개방성은 지적 재산권 확립을 요구했던 MS의 태도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특성이다. 중국은 MS 패권에 종속되는 것은 두려워했으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첨단 기술은 원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리눅스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후 2000년 1월에 중국 내에서 상업적 목적의 웹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비즈니스를 하려면 데이터의 도청·변경을 막는 암호화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포하였다.¹⁶⁾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기술 확보를 위한 의도에서 오픈 소스 코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구에서 오픈 소스 방식이 지식의 공유와 축적 혹은 MS에 대한 대항담론의 차원에서 등장했다면, 중국에서는 미국이라는 패권을 견제하여 자국의 주권을 지키고 나아가 기술 확보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칫 자국 주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MS에 대한 패권을 견제하고 자국의 부국강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구와는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리눅스의 오픈 소스 코드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리눅스 지원 정책에서 대항패권적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

1) 도메인 이름 체계의 권력적 함의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중국의 대항패권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생소한 인터넷 기술적 용어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메인 이름 체계(Domain Name System)란 인터넷 식별 체계(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한 종류이다.¹⁷⁾ 인터넷 식별 체계는

16) 김익수, 2004, p. 416

17) 다음에 논의되는 인터넷 식별 체계와 관련된 기술적 설명들은 모두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인터넷 사용자가 손쉽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를 뜻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전화번호라고 할 수 있는 IP주소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IP주소는 211.253.37.240과 같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를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로 바꾸어주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식별 체계이다.

이러한 인터넷 식별 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메인 이름 체계(DNS)다. 현재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 와 같이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들이 모두 이 도메인 이름 체계에 해당되며, 전 세계의 13개 루트 서버¹⁸⁾에 각각의 네임서버가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도메인 이름 체계는 다시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General Top Level Domain)과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으로 나뉘어진다. gTLD는 .com, .net과 같은 것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관리하고 있으며, ccTLD는 .kr(한국), .jp(일본), .cn(중국)과 같은 것으로 각각의 국가들에 관리가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메인 이름 체계는 영어 알파벳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어권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비영어권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iDNS)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였다. 김상배, “사이버 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운영관/유석진 (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 전략』 (서울: 한울, 2003), pp. 170-218

18) 루트서버란 최상위도메인(Top Level Domain, TLD)을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있는 서버로, 인터넷의 모든 주소 찾기가 시작되는 서버이다. 이 서버가 제대로 관리되고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역정보 파일에 오류가 없어야 인터넷상에서 각 도메인으로 제대로 연결될 수 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70152> 검색일: 2006년 6월 14일)

도메인 이름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권력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접근성의 측면이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메인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누가 사이트 접근을 위한 도메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권력 자원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제 혹은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또 다른 권력자원이 존재하게 된다. 즉,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교차점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통하는 길목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는 접근 제약의 문제¹⁹⁾에서 권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메인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접근에 대한 규칙을 형성하는 일종의 제도라는 점에서, 도메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위자는 ‘구조적 권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권력은 미국의 ICANN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ICANN은 도메인 이름 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루트 서버와 gTLD를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ICANN은 1998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지만, 사실상 미 상무성 아래에 소속되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관여된 인터넷의 거버넌스를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는 국제기구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국가들이 ICANN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2005년 11월 튀니지에서 열렸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는 짐바브웨, 중국, 쿠바, 이란, 파키스탄 등이 일개 미국회사인 ICANN이 인터넷 관리를 독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인터넷 관리를 맡을 것을 주장하며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²⁰⁾

둘째, 사용 언어의 측면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메인 이름 체계는 ASC II 코드를 기반으로 한 영어 알파벳으로 형성되어 왔고, 이에 따라 비영어권 사용자들이 다국어 도메인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영어라는 언어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일종의 규칙이 됨으로써,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구조적 권력’을

19) 김상배, 2003, pp. 171~172.

20) 『전자신문』, 2005년 11월 18일

행사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국어 도메인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역시 ICANN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ICANN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양상 중의 하나로 다국어 도메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중국어 도메인 추진을 통한 중국의 대항패권

ICANN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패권으로 간주한다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ICANN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BM 중국 발전 연구 센터(IBM 中国发展研究中心)는 미국이 13개 루트 서버를 ICANN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미국이 네티즌들이 방문하지 않기 바라는 사이트가 있다면 IP주소가 도메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에서 그 사이트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라크 전쟁 기간에 ICANN은 이라크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 ".iq"의 신청과 서비스를 중지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치하에 있을 때에는 ".af"의 사용권리를 망명 정부에 부여하였고, 2003년 아프간 전쟁 이후 탈레반이 몰락한 후 아프간 과도정부에 양도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현실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ICANN의 권한을 이용한 사례를 들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미 패권에 대하여 경각심을 보이고 있다.

접근성의 차원과 사용 언어의 측면 모두에서 중국은 모두 대항패권적 특성을 보인다. 중국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 ICANN 위주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 독자적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기도 했

21) 人民日报, 2006년 3월 3일, (<http://media.people.com.cn/GB/40606/4160608.html> 검색 일자: 2006년 6월 28일)

다. 이 중 2006년 3월 1일의 사례는 중국어 뉴스 사이트가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대항패권적 움직임으로 얼마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중국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2006년 2월 28일 영문판 신문에서 “중국어 중국어로 이루어진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인 “.中国(cn)”, “.公司(com)”, “.网络(net)”을 만들었으며,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미국의 ICANN이 관리하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웹 서핑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²²⁾ 이것은 중국이 ICANN이 관리하는 루트 서버 외에 새로운 루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도메인 이름 체계를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ICANN의 인터넷 패권에 대한 중국의 정면 도전을 의미했다. 이 소식은 외국 언론 및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외신들은 앞 다투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ICANN에서는 CNNIC에 접촉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인민일보의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²³⁾ “ICANN에서는 최상위 도메인(gTLD+ ccTLD) 차원에서 다국어 도메인을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여기에 협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서비스하는 중국어 도메인은 새로운 루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cn 도메인 아래에서 plug-in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치 최상위 도메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ICANN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번역자가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국어 도메인 도입을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ICANN의 인터넷 거버넌스 패권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ICANN과 다른 루

22) *People's Daily*, 2006년 2월 28일
(http://english.people.com.cn/200602/28/eng20060228_246712.html 검색일자: 2006년 5월 30일)

23) *Info World*, 2006년 3월 1일.
(http://www.infoworld.com/article/06/03/01/76004_030106HNicannchina_1.html 검색일자: 2006년 5월 30일)

트 서버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다국어 도메인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다국어 도메인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훌륭한 모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법 학자인 마이클 가이스트(Micheal Geist)는 비록 ICANN이 오보라는 사실에 안도하긴 했으나 중국의 자국어 도메인 도입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현재의 ICANN 체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현재의 성공을 기반으로 중국은 독자적 루트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할 것이며, 이에 따라 3월 1일의 발표는 ICANN의 배타적 DNS 거버넌스가 끝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²⁴⁾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자국어 도메인 이름 체제를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눅스 지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국어 도메인 사례에서도 중국 주권에 대한 위협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 정치에서 주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중국의 특성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커스 프란다(Marcus Franda)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ICANN과 같은 외국세력에 의한 중국어 도메인 관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을 다시 식민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실제로 IT를 담당하는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해 외국에 의해 좌우되는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는 주권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외환 유출을 불러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²⁵⁾

특징적인 사실은, 다국어 도메인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대항패권적 특성이 동시에 공격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자국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적 도메인 이름 체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동시에 ICANN의 독자적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ICANN은 각국의 다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 도입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독자적 위치를 이어가고자 했다. 2006년 하반기부터 다국어 도메인을 공식적으

24) *BBC News*, 2006년 3월 7일 (<http://news.bbc.co.uk/1/hi/technology/4779660.stm> 검색일자: 2006년 5월 30일)

25) Marcus Franda, *Governing the Internet: The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Regime*, (Boulder&London: Lynne Rienner, 2001), p. 210

로 시험해 보기로 발표한 것이다.²⁶⁾ 이에 따라 ICANN은 각국이 독자적 다국어 도메인 도입을 자제하고 ICANN이 국제 표준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중국이 독자적인 중국어 도메인 등록을 시작함으로써, 각국이 앞 다투어 중국을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보도되었다.²⁷⁾ 이스라엘, 이란, 인도, 러시아, 태국, 그리스 등이 ICANN의 표준화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국어 도메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주권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다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 추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공격적 차원에서 ICANN의 인터넷 패권에 대항하는 적극적 움직임들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도 작용한다. 방어적 차원에서나 공격적 차원에서나, 중국은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 디지털 대항패권적 특성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다.

III. 결론

중국은 운영 체제 산업, 인터넷 거버넌스와 같은 디지털 국제정치 분야에서 MS, ICANN으로 대표되는 미국 패권에 대한 대항패권적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MS가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를 통해 행사하는 구조적 권력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윈도우에 대한 가능한 오픈 소스 코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리눅스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픈 소스 코드 방식을 시작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관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차이점이 중국의 대항패권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ICANN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활발한 대항패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 『전자신문』, 2006년 3월 17일.

27) 『전자신문』, 2006년 5월 16일.

ICANN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대항적 움직임은 주로 중국어 도메인 도입 추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의 관리를 외국 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주권 보호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중국의 방어적 움직임은 독자적 자국어 도메인 도입을 목표로 하는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ICANN의 배타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협하는 공격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에서 중국이 디지털 국제정치에서 보여주는 대항패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대항패권적 특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한계점은 없을까?

리눅스 지원 사례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리눅스 개발 업체들은 모두 정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홍치 소프트웨어의 주주는 중국 과학 연구소(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이며, 터보 리눅스는 상하이시 정부, Sun Wah 리눅스는 장수(江蘇)성 정부를 배경으로 한다.²⁸⁾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중국은 민간 오픈 소스 공동체들의 활발한 개발과 피드백을 통해 리눅스 개발에 힘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²⁹⁾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는 오픈 소스 공동체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의 경우, 앞으로 중국이 독자적 루트 서버를 가지고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를 수립할 때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결성(connectivity)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ICANN 위원에 선출된 최초의 중국인인 핀다 왕(Pindar Wong)은 "지구적 연결성이 인터넷에서 가장 가치 있는 측면이므로, 이 연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³⁰⁾ 중국

28) *NewsForge*, 2005년 11월 14일.

<http://business.newsforge.com/article.pl?sid=05/11/04/1727259&tid=110> 검색일: 2006년 6월 8일)

29) *NewsForge*, 2005년 12월 23일.

<http://trends.newsforge.com/article.pl?sid=05/12/08/2034216&tid=136> 검색일: 2006년 6월 14일)

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 수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자적 차원의 루트 서버 구축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인터넷을 만드는 것도 가능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큰 구조적 권력을 행사하는 미국 인터넷과의 연결성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잃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연결성과 대항패권적 움직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가느냐가 중국 인터넷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대항패권주의적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본 글에서는 주로 주권의 침해에 예민한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항패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앞으로 중국이 현재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과연 디지털 ‘패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성급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 사례에서 방어적 주권 수호 의도가 동시에 패권에 대한 공격적 영향으로 이어졌듯이, 대항패권과 패권 추구의 경계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중국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30) Marcus Franda. *China and India Online: Information Technology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World's Two Largest Nations*, (Lanham: Rowman&Littlefield, 2002), p. 96

<참고 문헌>

- 금희연, 2004.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의교정책,” 『중소연구』 Vol.27, No.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김상배, 2001,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 _____, 2003. “사이버 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윤영관/유석진 (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 전략』 서울: 한울
- _____, 2005.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봄)
- 김익수, 2004. 『중국시장 마케팅 : 전략과 사례』, 서울: 박영사
- 이규원 옮김, 2000. 『리눅스 비즈니스.com』, Cliff Miller, 서울 : 세종서적
- 정재호, 2001.“파룬공, 인터넷과 중국 내부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Vol. 35, No. 3
- 홍영의 옮김, 2000. 『리눅스가 윈도우를 능가하는 날』, Waki Hideyo, 서울: 혜지원
- 홍인기, 2004. 『중국의 IT산업·주요 IT(상장)기업』, 서울 : 박영사
- 황용석 옮김, 2005. 『아시아의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 Indrajit barnetjee(ed),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Marcus Franda. 2001. *Governing the Internet: The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Regim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_____. 2002. *China and India Online: Information Technology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World's Two Largest Nations*, Lanham: Rowman&Littlefield

S. Suzuki, 2004. "China's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Learning More about Power Politics?", *Asian Perspective*, Vol. 28, No. 3

『전자신문』, 2001년 3월 21일, 2005년 11월 18일, 2006년 3월 17일. 2006년 5월 16일.

BBC News, 2006년 3월 7일

Bussiness Week Online, 2004년 3월 30일

Info World, 2006년 3월 1일.

NewsForge, 2005년 11월 14일, 2005년 12월 23일.

People's Daily, 2006년 2월 28일

人民日报, 2006년 3월 3일

中国互联网信息中心 www.ccnic.net.cn

CIA The World Fact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